

제14호 태성종합건설 이청재 차장



평소의 작은 습관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정착시킨다.

따사로운 햇살이 차창을 두드리는 요즘, 드넓은 바다와 주변 높은 산지의 울창함을 자랑하는 충남 보령의 태성종합건설 이청재 차장을 찾았다.

태성종합건설은 설립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이지만 이석인 대표이사이 안전직원이 안전제일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도급순위 100위 이내로 급성장한 업체이다.

이업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청재 차장을 이달의 안전인으로 소개한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정상에 서다.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은지 10년이 된 이청재 차장은 어렸을 적부터 공사현장을 지날때면 마치 제 집을 짓는 듯 멈춰서 눈을 떼지 않을 만큼 건설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는 건축과 안전의 겸임을 시작으로 안전과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중심의 급성장을 이룩한 때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했다. 더욱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의 신입사원이었기에 근로자들의 협조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청재 차장은 인간존중이라는 이념이 좋아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안전에 관한 한 탐의 자리에 올랐다고 자부한다.


철두철미한 안전관리

평소의 이청재 차장은 넉넉한 웃음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그야말로 충청도 사나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그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카리스마 넘치는 안전관리자이다.

위험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는 건설현장을 그는 시각적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완벽에 가까운 시설들과 근로자들의 100% 안전보호구 착용 등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를 안전에 관한 한 대기업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안전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현장출입 자체를 금지시킨다. 일시적인 시공적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장 전체로 볼 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은 물론 무사고로 인한 득이 훨씬 크다고 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작업습관에서 비롯된다.

태성종합건설과 함께 한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도 안전을 생활화하여 보령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안전이 정착되는 것이 이청재 차장의 작지만 큰 소망이다. 이런 이청재 차장이 보령에 있기에 이곳 안전은 든든하다. 

<성호연 기자>